



캄보디아

- 통관 변동사항과 및 통관 시 소요비용



캄보디아 경제 현황

코로나19의 여파와 EBA¹ 부분 철회로 인해 잔금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완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는 등 봉제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. 또한 '20년 4월 앙코르와트 관광객이 전년 동월 대비 99.5% 감소하는 등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원인 관광업마저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다. 식품산업 분야에서도 CFMA(캄보디아 식품제조업 협회) 회원사 직원의 50~70%가 정직된 상태이며 정부에게 전기세 인하, 면세 등 지원을 요청해둔 상황이다. 참고로 타격이 심한 농업, 봉제업, 관광업, 제조업의 경우 이미 세금 감면 또는 면세 조치가 취해졌다.

캄보디아 정부는 봉제업 분야의 정직된 노동자에게 정부 40불, 회사 30불 총 70불을 지원하는 등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 중이나 여러 정황상 캄보디아 정부의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.

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5년간 추가 세수가 견혀 현 상황처럼 어려운 사태를 극복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으나 5월부터 교통범칙금 300~500% 인상조치를 취했으며 소량 컨테이너 화물(LCL, less than container load)에 대하여 통관 시 컨테이너 검사 관련 변경사항을 발표했다(더 많은 LCL 컨테이너를 검사할 것으로 예상됨). 즉 캄보디아 정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세수를 메우려는 것으로 추정된다.

통관 변동사항 : LCL 선적 통관 수정조치

캄보디아는 프놈펜 항과 시아누크빌 항을 통해 대부분의 해상운송이 이루어진다. 시아누크빌로 들어오는 선박 중 LCL 컨테이너에 대해 기존엔 관세청 본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LCL 컨테이너 개봉검사를 하지 못하던 방식이었으나 5.3부터는 항구의 검사관에게 직접 LCL 컨테이너 개봉검사 할 수 있는 결정권을 부여하였다. 이에 따라 앞으로 LCL 컨테이너에 대해 많은 개봉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.

¹ EBA(Everything But Arms) : EU의 개도국을 위한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일환으로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무관세, 무쿼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

통관 시 소요비용 : 해상운송 (40ft 드라이 컨테이너 기준)

항구에 선박 도착 후 통관 시 컨테이너당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.

※ 아래 금액은 참고용으로 품목별 · 물량별 정확한 비용은 통관업체 사전확인 필요

- Customs approval : 허가승인증 발급비용, 식품의 경우 최소 300불 소요됨 (세금 270~280불 + 서비스 fee) cf. 봉제의 경우 약 40불
- Customs clearance : Port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통관비로 보통 330~350불로 고정된 비용
- THC(Terminal Handling Charges) : 선박에서 컨테이너 내리는 등 항구 장비 사용 비용으로 600~800불
- * 선박에 따라 차이가 있고, 피크시엔 200불 추가 소요. 또한 항구가 복잡하여 선박 접안이 지연되면 일수에 따라 추가비용(약 200불+) 소요
- Free time(3~4일) 이후 비용 : Free time 이내 컨테이너 빼지 못하면, 일당 20~30불씩 추가 소요되고, 더 많이 지연되면 일당 소요비용이 배로 늘어남

(소개) 컨테이너당 약 1,200~1,500불 소요

* 상기 비용은 주로 통관업체에서 공식 영수증으로 발행

- 트럭운송비용 : (캄보디아 시하누크빌항-프놈펜) 300~350불, (베트남 하노이-프놈펜) 600~700불 소요

(소개) 컨테이너당 약 300~700불 소요

* 상기 비용은 통관업체에서 공식 영수증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간이영수증 등으로 청구될 수 있음

통관 시 소요비용 : 항공운송

작년부터 급격히 수출이 늘어난 딸기를 예시로 캄보디아 공항 도착 후 통관 시 파렛트당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.

※ 아래 금액은 참고용으로 품목별 · 물량별 정확한 비용은 통관업체 사전확인 필요

- 세금 : 물품대의 7%(수입관세) + 10%(부가세) / 공항 세관에 납부
- 통관비 : 320불
- 냉장 보관비용 : 60불
- 검역 심사비용 : 50불
- * 검역의 경우 정육 제품을 제외한 식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역을 실시하지 않고 한국의 수출 식품검역 증명서로 대체가능

(소개) 430불 + 딸기의 17% 세금

* 배송비용은 무게에 따라 다르나 1개 파렛트 물량 기준 프놈펜 시내까지 약 180불 소요



Key Point

캄보디아는 통관비용이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보다 비싼 편이며 최근 코로나 여파로 정부의 부족해진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일부 수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강화된 통관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. 또한 캄보디아는 전력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므로 특히 냉장보관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. 캄보디아에 수출을 계획하는 수출업체들은 물류비용 및 절차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.

